

부활 제4주일 복음 나누기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요한 10,30)

1. 성호경
2. 시작성가(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
3. 자기소개와 지난 시간 동안의 삶 돌아보기(각자 어떻게 지냈는지 발표합니다)
4. 준비기도<각자 자유롭게>
5. 독서 (성경읽기 I) - 요한 10,27-30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0 27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27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28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29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어,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30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 세밀한 독서 나눔

- 한 사람이 성경을 큰 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다 같이 큰소리로 읽어도 좋습니다)
- 모두 들은 후, 각자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세밀히 읽습니다.
- 한 사람씩 특별히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천천히 세 번씩 반복하여 외칩니다.
- 잠시 묵상한 후에 단어나 구절을 선택하게 된 동기를 돌아가며 발표합니다.
- 세밀한 독서가 끝나면 성경 해설 부분을 서로 돌아가면서 천천히 읽습니다.

< 성경해설 >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서 봅시다. 먼저 복음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복음 앞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살펴보면, 때는 성전 봉헌절 축제 중(BC 164년 유다 마카베오가 시리아 군대에 의해 더럽혀졌던 성전을 탈환한 것을 기념하는 ‘하누카’(봉헌)축제)인 겨울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22절). 예수님께서서는 유목민이었던 그들에게 중요한 재산이었던 양을 비유로 들며 목자와의 관계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시며, 목자이십니다(7절). 그것도 착한 목자이시며,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 놓는 분이십니다(11절). 즉,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 계시는 것이지 양들이 그분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27절) 여기서 의미하는 ‘안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인식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양들과의 인격적인 경험을 통해 그들을 안다는 것을 말합니다. 각기 양들의 특징과 나약함을 모두 통으로 꿰뚫고 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불완전한 점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내어 놓기까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11절)). 이것이 바로 착한 목자가 자신의 양을 아는 방식이며, 양들이 목자를 알아보는 방식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28절) 요한복음의 중심 단어 중 하나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원한 생명”은 생명이 끝없이 지속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승의 생명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에 역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영원한 생명”이란 신적인 생명 즉, 새로운 차원의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느님의 생명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느 늑대도 그 양들을 빼앗아 갈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착한 목자의 손 안에 있는 양들은 아버지의 손 안에 있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느님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30절) 이 말은 하느님과 함께 일하며(5,17.19), 하느님과 함께 있으면서 일치하고(5,30;8,16.18), 하느님의 뜻과 지시에 따라 행동함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6,38;8,26.28;10,18).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하느님과 같거나, 변장을 하고 세상에 걸터 다니시는 하느님이라고 주장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아버지의 영광을 삶으로 드러내실 뿐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분의 하느님은 결코 없다는 그들의 주장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친히 하느님의 일을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일생이 하느님의 영광이셨습니다. 영광은 십자가를 건너감으로써 얻게 되는 빛입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알아듣기 위한 우리 편에서의 노력을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의 만남 안에서 하느님의 자리를 찾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당신 사랑 안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그분을 말입니다. “어좌 한가운데에 계신 어린양이 목자처럼 그들을 돌보시고 생명의 샘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며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묵시 7,17)

※ 목상나누기

(말씀 나누기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특별히 체험 발표를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 *일상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어떻게 매순간 응답을 드리고 있는지 나눠 주십시오. 주님의 이끄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도우심의 은총을 청해야겠습니다.*

6. 되새김(성경읽기 II)

☞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며, 기도와 관심 그리고 실천을 위해서는 되새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다른 누군가가 또다시 큰 소리로 읽습니다.

7. 마침기도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8. 안건토의

9. 기타토의(공지사항)

10. 마침성가(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